

대한민국,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아·태지역 의장국 선출



정관수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
ksjung@cnu.ac.kr

들어가며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이하 IHP)은 범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64년 유네스코 제13차 총회에서 제안되어 190여개 유엔(UN) 회원국이 장기간 참여해오고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연구사업이다. IHP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협력프로그램이며, 회원국들은 단계별 계획에 따른 장기 프로그램 수행, 각 단계별 역할과 계획을 결정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물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IHP는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계별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출판, 비정규예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 국제수문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1965~1974)에 참여하고 1975년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8단계까지 연구조사를 수행해왔으며, IHP 시험유역을 운영하고 기초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고유의 수문자료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IHP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온 한국은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IHP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IHP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정부간이사국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IHP 한국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한 IHP 9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진행되는 9단계 사업은 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물 관련

기술 역량 강화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은 9단계 우선주제 1 (과학연구와 혁신)의 부의장국, 세부주제 1.9(수자원 이해관계자들의 AI 역량강화)의 선도국으로 선정되어 해당사업 이행에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IHP 한국위원회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22년 6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공동위원장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민간측 전문가)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내 물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IHP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구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같은 해 9월, K-water 연구원에 사무국을 설립하였으며, 총 5명의 직원이 IHP 9단계 국내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개 소위원회(기획·정책자문·학술·대외협력) 활동 지원, IHP 관련

국내외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IHP 아·태지역 의장국 선출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는 2023년 2월 20~22일 사흘간 일본 쓰쿠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차 IHP 아시아·태평양 지역운영위원회(Regional Steering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RSC-AP) 회의에 참여했다. IHP RSC-AP는 아·태지역 IHP 단계별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참석대상은 RSC-AP에 가입한 27개 회원국¹⁾, 유네스코 자카스타 사무소, 물관련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등이 있다. RSC-AP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국, 각 기관별 IHP 9단계 이행성과 및 현황을 공유하고, 역내 유네스코 중점 수문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IHP 국가위원회 간 물 관련 과학연구·교육협력을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물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IHP의 단계별 사업 연혁 >

- 1965 ~ 1974 : 국제수문개발 10개년 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
- 1975 ~ 1980 : 1단계(IHD와 같은 기초로 세계 물 균형, 지구의 수자원 문제 해결)
- 1981 ~ 1983 : 2단계(수문 및 수자원의 실용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
- 1984 ~ 1989 : 3단계(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의 수문학적, 과학적 기초 확립)
- 1990 ~ 1995 : 4단계(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문 및 수자원)
- 1996 ~ 2001 : 5단계(취약한 환경에서 수문 및 수자원 개발)
- 2002 ~ 2007 : 6단계(물 상호작용 : 위험 및 사회적 난제에서의 시스템)
- 2008 ~ 2013 : 7단계(물 의존성 : 스트레스와 사회적 반응을 받는 시스템)
- 2014 ~ 2021 : 8단계(물 안보 강화 :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난제에 대응)
- 2022 ~ 2029 : 9단계(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

1) 27개 RSC-AP 회원국 (대한민국, 네덜,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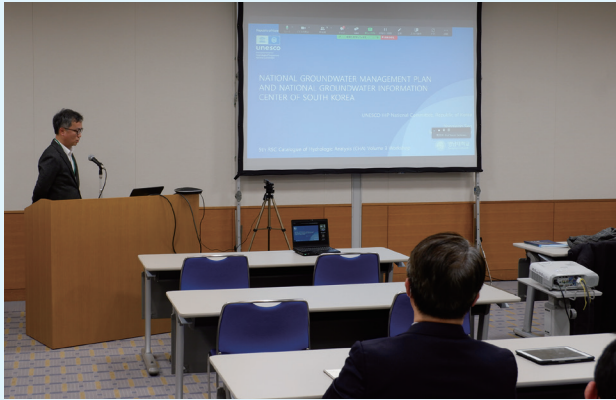


그림 1. 제5차 CHA 워크숍 한국 지하수관리 발표



그림 2. ICHARM(수재해 및 위험관리 국제센터) 업무협약의

금번 RSC-AP 회의 중 개최된 제5차 수문분석보고서(Catalogue of Hydrologic Analysis; 이하 CHA) 워크숍에서 영남대학교 서용원 교수(IHP 한국위원회 학술 소위원장)는 “한국의 지하수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국 전문가들과 지하수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부대학교 이주현 교수(IHP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호서대학교 정건희 교수(IHP 한국위원회 대외협력 소위원장) 등은 아·태지역 물 관련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중 일본의 ‘수재해 및 위험관리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Hazard and Risk Management; ICHARM)’와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생태수문학 센터(Asia-Pacific

Centre for Ecohydrology; APCE)’와 업무협약을 갖고, IHP 9단계 이행을 위해 IHP 한국위원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21일 오후에는 2022년부터 국내에서 진행 중인 IHP 9단계 국내활동에 대해 주요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RSC-AP 의장국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가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되었으며, 한국위원회의 안정된 조직 및 IHP 9단계 이행역량을 인정받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의장국으로서 앞으로 2년간 유네스코 IHP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며, 각 국가별 위원회와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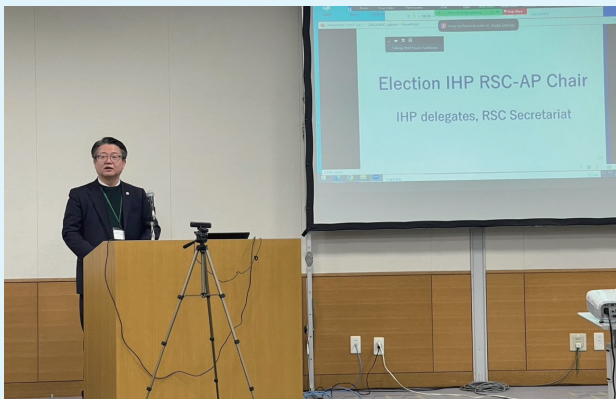


그림 3. RSC-AP 의장국 선출 소감



그림 4. 제29차 IHP RSC-AP 회의 단체사진

관련 카테고리 2센터, 아·태지역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Water Family)²⁾와 IHP 제9단계 이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금번 의장국 선출과 함께 2024년 제31차 IHP RSC-AP 회의 국내유치가 확정되었다. IHP RSC-AP가 국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각국 정부대표단, 국가위원회, 물관련 카테고리 2센터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며, 국내 물관련 기관·기업·학계·청소년·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IHP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물 분야 기술자·전문가들이 27개국 아태지역 국가위원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식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물 관리 기술·정책·연구성과 등을 전파하고, 국제 물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맺음말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기간과 맞물려 진행될 IHP 9단계 사업수행 시 대한민국이 의제를 주도함으로써 국제 물 리더십을 강화하고, IHP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선진 물관리 방안을 전파·도입함으로써 SDG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IHP 한국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네스코 IHP 한국위원회 소속기관과 전문가, 사무국 및 국내 물관련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함께 달성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2) 유네스코의 물 관련 전략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서 2019년 기준 168개 IHP 국가위원회, 36개 카테고리 2센터, 55개 석좌 프로그램 및 유니트윈으로 구성